## 광주 첫 빵 페스타 '미미당' 흥행 예감

이틀간 1만5000명 방문 5억 매출…일부 수익금 기부 광주관광공사, 성과 분석 후 미식관광모델 발전 모색

한 가운데 올해 처음 열린 '빵 페스타'에 매출액 5억원을 넘어섰다. 1만5000명이 방문해 5억원의 매출을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김대중 었다니"등 후기가 1000여건 게시됐다.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'2025 광주 빵페스 타'에 1만5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 관광공사와 광주RISE사업단 남부대학

또 광주지역 제과업체(베이커리) 24

광주지역 대표 베이커리 24곳이 참여 이라는 이름의 공동 브랜드로 선보여 총

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는 "오전 9 시 반부터 줄을 섰는데 인기 빵은 2시 전 4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에 품절" "우리 집 앞 빵집이 이렇게 맛있

> 광주지역 빵을 소개하는 행사는 광주 교의 논의를 통해 치러졌다.



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린 '2025 광주 빵 페스타 미미당'

들이 준비된 테이블에 앉아 광주의 다양 행사장은 '가을 정원 속 빵축제'를 콘 한 빵을 즐겼다. '빵으로 도시를 여행하

대한제과협회 광주전남지회는 딱지 치기, 오재미 던지기와 같은 참여형 이벤

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커리 쿠폰을 제공 했다. 이번 축제를 통한 일부 수익금은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에 기부한다.

2025년 11월 5일 수요일

광주관광공사는 스마트 웨이팅 시스 템 도입,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, 로컬 베 이커리 협업 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계획 이다. 또 SNS 후기와 설문 데이터를 분 석해 방문자 유형과 소비 패턴을 연구해 지속 가능한 지역 미식 관광 모델로 발 전시킬 예정이다.

광주관광공사 관계자는 "이번 페스타 는 지역 베이커리 산업을 관광자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"라며 "이번 빵페 스타 성과를 분석해 미식관광모델로 발 전시킬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



## 전남쌀, 베트남 호치민서 인기 소비재 종합 판촉전 조기완판

전남도 동남아사무소는 지난달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5 한국 프리미엄 소 비재 종합판촉전에 참가해 전남쌀 판촉 활동을 펼쳐 조기 완판 실적을 올렸다.

이번 행사는 코트라 호치민무역관과 호 치민의 시도대표사무소가 협업해 우수한 한국 소비재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. 2019년부터 호치민의 대형 쇼 핑몰 에스텔라 플레이스에서 6년째 이어 지고 있다.

전남도 동남아사무소에 따르면 전남쌀 은 행사 전부터 교민단체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많은 문의가 이어졌으며, 행사 첫날 부터 입고한 물량이 조기에 판매 종료될 정도로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.

이 외에도 마른김, 조미김, 홍어, 유자 차, 함평 샤인머스캣 등 신선하고 맛있는 전남산 농식품은 현지 소비자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베트남 시장 내 K-푸드 경쟁 력을 입증했다.

전남도 동남아사무소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남은 기 간 다각적인 전남 농수산식품 등 판촉 활 동을 이어갈 예정이다.

박정렬 기자 holbul@gwangnam.co.kr

## 임동 주민이 직접 찾은 지역문제 해법

디자인진흥원, '임동디지털창작소 리빙랩'…대상에 '달여라'

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임동디지털 표했다. 창작소에서 '2025 임동디지털창작소 주 민참여 리빙랩 (메이커톤) '을 개최했다.

직접 발굴하고,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 다. 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.

공유자전거 서비스 △버려지는 캔을 재활 용한 '2 in 1 야구 응원봉' △지역 활성화 를 위한 러닝 코스 앱 '달여라' △재미를 통해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스마트 분리수 다. 심사위원단은 "지역 경제 활성화에 거함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무대에서 발 실질적 피급력을 가질 수 있는 창의적 기

"김치 속 미생물, 미래 바이오산업 핵심 자원"

벤션센터에서 열린 (사)한국미생물학회 소 박사가 '김치자원은행(BKRI):김치

국제학술대회에서 '차세대 미생물자원은 유래 생물자원 플랫폼'을 주제로 자원의

행 구축을 위한 김치자원은행의 전략 방 수집・보존 및 데이터 관리 체계를 소개했

안'을 주제로 공식 세션을 운영했다고 4 다. 이어 △조장천 인하대학교 교수 '신규

이번 세션은 한국미생물학회가 주최한 집'△박상민 ㈜팜스빌 이사 '미생물자원

발효 미생물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전략 김소영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이 '김치

미생물자원은행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 발효 미생물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'을 발

세계김치연구소, '차세대 미생물자원은행 전략' 제시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 해 마련됐다.

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최근 수원컨

일 밝혔다.

의지, 혁신성, 주제 적합성, 사회적•경제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메이커톤에 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1 는총 4개팀이 참가해 임동 지역의 현안을 팀, 최우수상 1팀, 우수상 2팀을 선정했

참가자들은 △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라'팀이 수상했다. '달여라'팀은 임동지역 의 공원과 거리, 유휴 공간을 연결한 러닝 코스를 제안하고, 이를 기반으로 참여형 러닝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

발표 세션에서는 김태운 세계김치연구

김용모 원장은 "임동디지털창작소 리 빙랩은 주민이 주도해 지역 문제를 해결 하는 대표적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"며 전문 심사위원단은 문제 인식과 해결 "지역 기반의 창의적 실험과 사회혁신 활 동을 적극 지원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 흥원이 운영하는 임동디지털창작소는 3D 프린터, 레이저 커터, 라텍스 출력기, 승 대상(광주디자인진흥원장상)은 '달여 화전사기 등 총 25종 69대의 디지털 장비 를 갖추고 있다. 시민 누구나 장비 교육과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, 장비 대여 서비스도 운영해 지역 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을 돕는 공간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이승홍 기자 photo25@gwangnam.co.kr

와 글로벌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.

선점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.

## 광주신보,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'온힘'

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와 업무협약

제인협회 광주지회와 여성기업의 성장 지 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. 위 및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.

광주신용보증재단은 최근 한국여성경 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

양 기관은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지원, 경영환경 분석, 정책자료 공유, 금융제도 협약은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 활용 방안 모색 등 실질적 지원을 함께 추 확인할 수 있다.

진하기로 했다.

다고 강조했다.

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"광주지역 여성기업이 안정적인 자금 지 원과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"며 "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 속 협력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자세한 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 이지 (https://www.gjsinbo.or.kr) 에서 이산하 기자 goback@

